2018학년도 수능수학
『이젠, 이정환 실전력 극대화 수학이 대세입니다.』

<시작하는 수험생의 마음가짐>

봄입니다. 수험생의 처지에서는 자연을 마음껏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능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에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볼 수는 있을 듯 합니다.

수능공부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중요한 것은 수능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승부라는 것입니다. 축구경기의 예를 들어보면 3월, 4월, 5월 정도가 지난다고 해도 전반전도 아직은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축구경기를 보고 있을 때 응원하는 팀이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가령 1:0쯤 뒤지고 있는 상태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승부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승부를 포기하고 있으면 아마도 엄청난 비난과 질책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럼 2:0쯤 뒤지고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점수의 차이야 있을 수 있지만 5:0 이상이 아니라면 거의 마찬가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수능에서의 목표가 1등급이라고 할 때, 현재 2등급이나 3등급이면? 당연히 목표를 포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4등급, 5등급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특히 최근 수능의 난이도를 고려하면 30문항 중에 2개문항 내외까지는 현재 어떠한 수준에 있다고 해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경기로 비유하면 전반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기고 있다고 방심하면 안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역시 현재의 수능 난이도에서는 2개문항 정도는 맞히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해도 나머지 3문항을 맞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2-3년을 수능공부를 해도 맞히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승부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감독이나 코치들이 끊임없이 어떤 작전을 주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노력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문제점을 찾고, 그것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반드시' 고쳐집니다.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한 간단한 해설과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전에 제공해드린 3월 모의고사 '대비' 이정환 모의고사도 있습니다. 이 두 모의고사 정도면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할 지 충분한 안내와 자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소통'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료들을 참조하면서 의문이 들거나 필요한 질문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이용하길 바랍니다.

시작하는 마음가짐은 세가지 정도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8학년도 수능수학

『이젠, 이정환 실전력 극대화 수학이 대세입니다.』

첫째. 이제 시작이다. 지금 어떠한 수준이든 '앞'으로의 노력에 결과가 달려 있다.

둘째. 그러나 단지 '열심히' 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그것을 고칠 수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수능일까지 '꾸준하게'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